



수신	각 언론사 과학·노동·사회부 담당 기자 등
발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연택]
연락처	담당: 오수환 교육국장(010-6437-1032)
배포일시	2024년 10월 17일 18시
제목	제주테크노파크 문용석 원장의 행정감사 위증 발언과 무책임을 규탄한다!

제주테크노파크 문용석 원장의 행정감사 위증과 무책임을 규탄한다!

지난 10월 15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의원이 제주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 원장에게 “노사관계 회복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사갈등, 조직내부의 인사문제 등에 대해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완결’로 처리한 것 역시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용석 제주TP 원장은 “공식 노사 소통창구인 노사발전위원회를 통해 노조와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제주테크노파크 내부에 깔린 오해를 불식시키고 노조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문용석 원장의 답변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 답변이다.

공식 노사소통창구라는 노사발전위원회(이하 노사발전 TF)는 문용석 원장이 노동조합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사용자 측 TF 위원장에게조차 아무런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나마 노조와 소통이 가능했던 TF 위원들을 노조와 친하다는 이유로 전원 교체해 버림으로써 노조와 소통마저 차단했다.

문용석 원장은 23년 행정감사에서 노사갈등, 조직내부의 인사문제 등에 대해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주문받았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사발전 TF를 통해 노동조합과 잘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답변을 하였다.

거짓 답변과 지적 사항 불이행을 서슴지 않는 문용석 원장의 언행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다. 이는 제주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도의회를 모독하고 제주TP 구성원들의 대표체인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기관의 수장으로서 공정한 모습, 책임지는 모습은 공공기관장이 갖추어야 할 당연한 덕목이다. 독단, 독선적인 경영과 불통으로 인해 일어난 무질서와 혼란으로 조직 전체에 끼친 피해를 노동조합의 잘못으로, 직원들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기관장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문용석 원장은 본인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공공기관의 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문용석 원장의 무책임, 무능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문용석 원장은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거짓 답변과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불이행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용석 원장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남김없이 바로잡고 제주TP가 제대로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10월 17일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